

日本, 韓人 동원 649곳 地下공사

本土결전대비 軍시설구축 20萬坪 규모 비행기 공장도

日방위청 자료발견: 『延이원 7百50萬명』

으로 나타냈다.

【東京聯】 2차대전말기日 本軍은 강제연행한 韓人들을 대규모로 동원, 일본 각지에 무려 6백49개소 총 57만여평에 이르는 지하 군사시설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일본방위청방위연구소에 보관된 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와관련, 일본교과대 야마타(山田昭次)교수(일본 근대사)는 군사관련 시설의 지하화에 대해서는 알려졌으나 전국 규모의 자료는 아직 없어 이들 자료는 2차대전말기 상황을 설명해주는 귀중한 것이라면서 일본군은 본토결전에 대비, 동력이 부족해지자 대부분 강제연행한 韓人을 투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22일 「朝鮮人 강제연행 진상조사단 중앙본부」(단장金基喆)가 日 방위청 방위연구소에서 발견한 「日本武器工業會 資料 陸軍施設關係綴」에 따르면 일본군은 지난44년부터 45년8월까지 본토 결전에 대비, 군사시설의 지하화 작업을 벌여 육해군의 지하시설만도 5백49개소(총면적37만3천평)를 구축했다.

이 자료는 지하시설의 소 속 및 소재지 사용목적(작전실, 탄약고 등) 규모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戰後에 연합군 총사령부의 요청에 의해 일본측이 작성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부가 별도로 찾아낸 美전략폭격 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군은 1945년3월부터 8월 까지 모두 1백개소(20만

3천평)의 지하공장을 건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지하공장 건설을 위해 동원된 사람만 7만50만명으로 주로 韓人과 중국인, 포로라고 기록하고 있다.

同본부는 이 보고서와 육군시설관계철에 명시된 지하시설이 단 한곳도 중립된 곳이 없어 일본군의 지하시설은 모두 6백49개소라고 전하고 『현지의 조사 결과 韓人들이 작업한 것